

정수기 부품 제조업체 (주)신원튜브

(주)신원튜브는 1989년 신원산업으로 일반튜브 및 산업용 튜브와 가스켓 등등 생산업체로 출발하였다.

정수기용 튜브를 생산하기 시작한 때는 1997년 IMF를 계기가 되었고 지금은 정수기용 튜브 전문 생산업체로 자리 매김을 하였다.

소규모 창고로 시작되었지만 현재 경기도 광주 소재 1,2공장의 규모로 성장하였다. 정수기용 튜브 생산을 위해 2005년 9월 ISO 9001~2000 인증을 받았고, 2007년 클린사업장 인정을 받았다. 소기업이지만 제품 및 직원을 위한 투자를 계속하고 있으며 2007년 10월부터는 직원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 산학연계 프로그램에 참여 직원들을 교육하고 있다.

(주)신원튜브는 두 분의 공동 대표 체제로서 운영되고 있는데 생산, 설비,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장공철 이사와 공장관리, 영업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이건구 이사 두 분이다. 두 대표이사께서 업무를 분담하고 있는데, 어찌보면 동업자의 관계가 어려울 수 있지만 업무 분담을 통한 관계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회사를 성

장시켜 오고 있다.

이건구 대표 이사께서는 2006년 한국화학시험 연구원에서 기안한 정수기용 튜빙 신뢰성 평가 기준안을 만드는 데 정수기용 튜빙 업체 관계자로 참여하셔서 도움을 주기도 하셨다.

또한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관심과 직원들의 개인사에서 깊은 관심을 기울이셔서 직원들의 어려움을 독려하시고 묵묵히 도와주시는 자상한 분들이기도 하다.



대표이사 이 건 구
(주)신원튜브
031 / 764 / 8240

신원튜브의 주요 제품은 트윈 튜브이다 이 제품은 정수기의 설치자재로 수도에서 정수기로 물을 공급하고 폐수를 배출하는 용도로 개발된 제품으로 2000년에 개발되어 2001년부터 출시되었다. 기존에는 튜빙 두 개를 밴드로 묶어서 정수기 설치자재로 사용하였다.

트윈 튜브는 튜빙 두개를 하나로 즉 두개의 튜빙에 외피를 씌워 밴드로 묶는 번거로움이 없어졌고 튜빙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아 튜빙이 설치시 꺾힘



트윈 튜브



트윈 튜브 외피 절개

이나 충격에 안전하게 되었고 또한 설치 후에도 보기에 안정감이 있게 되었다.

특히 튜빙에 외피를 씌우는 코팅 기술은 신워튜브만의 노하우가 들어 있다. 그것은 외피가 절개선을 따라 칼을 대지 않고 갈라지는 것인데 이는 정수기 설치시 튜빙에 손상을 주

시 않도록 한다. 왜냐하면 외피를 절개하기 위해 칼이 나 가위, 니퍼등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이는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손톱만으로도 외피를 절개선을 따라 찢어서 당기면 자연스럽게 절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튜빙에 손상이 없어 누수에 대한 위험이 없어지고 설치하는 시간 단축이 된다.

특히 이 제품은 2005년 12월 디자인등록을 출원 하였으며 튜빙은 2006년 1월 NSF61 인증을 획득하여 제품의 질을 인정받았다. 최근들어 제삼의 기업들을 통해 수출분량이 늘어나고 있어 고무직이며 매출 신장을 기대하고 있다.

튜빙은 1997년 IMF 이후부터 생산을 시작하였고 이전까지 수입에 의존하던 국내 시장에 지금까지 공급해오고 있다. 튜빙의 주 고객은 국내 정수기 관련 업체들으로써 W사, C사가 있고 기타 많은 업체에도 납품을 하고 있으며 비데기 및 이온수기를 생산하는 업체에도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그리고 2006년 LLDPE 재질로 NSF 인증을 받은 상태이며 EU의 환경규제 RoHS 유해물질 관리 규정도 통과하여 인체에 무해한 제품임을 인정받고 있다.

튜빙 제품은 다양한 규격(6.35mm, 8mm, 9.5mm, 12.7mm), 다양한 칼라(청색, 흰색, 흑색, 오렌지색, 회



튜빙 완제품



튜빙 이미지 연출

색, 푸딩등), 기능성(RI 튜브는 섭씨 90℃까지 사용)이 생산되고 있고 고객의 요청이 있으면 이외의 규격 제품도 생산이 가능하다.

앞으로 정수기 산업이 더 발전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바(내수, 수출) 그에 따른 수요의 증가에 따른 설비의 투자 및 다양한 제품에 대한 기능성 제품을 개발하고 고객(구매회사)의 요구에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위해 정진할 것이며 최고의 제품을 공급하는데 우선할 것이다.

또한 산업 발전에 따른 환경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더불어 먹는 물에 대한 중요성이 민감해지는 현재, 미래를 생각하는 친환경 제품과 환경호르몬을 걱정하지 않는 인체에 무해한 제품만이 유일한 목표로 삼고 정진할 것이다.

|기술표준 2008. 4